

“꿈을 가지고 용기있게 도전하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립군산대학교서 졸업식 축하 연설
“졸업생 여러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실력을 발휘할 때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0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기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축하 연설을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0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3회 전기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축하 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도전과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졸업생의 앞날을 응원해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번 초청은 교육혁신을 선도하며 국립대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에게 담대한 비전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 전 의장은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국가 전체가 당면한 어려움이다. 하지만, 국립군산대학교가 이러한 악조건을 딛고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도대학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이

에 축하와 감사, 그리고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국립군산대학교를 찾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장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학생들에게 꿈이 가진 힘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 동네 담벼락이 붙은 선거 포스터를 보고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했다”며, “그날 이후 꿈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으며, 꿈이 명확해지자 용변을 배우고,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학생회장에 도전하는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꿈은 스스로를 두 배, 세 배, 열 배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마법과도 같다. 국회의원이란 꿈이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라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폴로 11호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꿈을 향한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준비가 없었다면 11호의 성공은 없었을 것이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목표가 뚜렷하면 중간 목표가 보이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특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니, 졸업식장을 나가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두 번 세 번이고 던져보라고 조언했다.

이날 정 전 의장은 자신의 현재 꿈을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성실한 노력만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회가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졌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나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국민에게는 저력과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능력이 곧 국민의 실력이다. 이제 여러분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실력을 발휘할 때다. 여러분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일에 나도 힘을 더하겠다”며 졸업생을 격려했다.

졸업생들은 정 전 의장의 축하를 통해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졸업생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실력을 펼쳐 보일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또 다른 졸업생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실력을 발휘하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행복학교, 초등·중학과정 34명 졸업

졸업생 평균 연령 76세 · 최고령 90세 이필순 씨

익산시가 20일 익산시평생학습관에서 ‘익산행복학교 제5회 초등과정·제2회 중학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초등과정 16명, 중학과정 18명 등 졸업생 34명을 비롯해 교사, 가족, 지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학습 활동이 담긴 영상을 함께 감상했다.

졸업생들은 검정고시 없이 초등·중학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올해 졸업생의 평균연령은 76세로 적지 않지만 늦은 배움에 대한 열정은 청춘 못지않다.

최고령 졸업생은 이필순(90)씨다. 이씨는 이번에 수료한 초등과정에 이어 중학과정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익산행복학교는 2011년 시작된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23개 읍·면·동 작은도서관과 경로당 등에서 찾아오는 학습을 운영하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함열여자고등학교에 ‘시니어반’이 신설된다. 올해 중학과정을 졸업한 10명이 함열여고 시니어반에 입학하는 성과도 이뤄졌다.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이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을 준비 중이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박정순(64)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더니, 정말 꿈만 같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해준 익산시에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익산시의회 의장단, 시정발전 모색

정기 간담회 개최...주요 현안사업 논의 · 지역 발전 위한 협력 강화

익산시는 지난 19일 익산시의회 의장단과 시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확대하는 ‘전북권 광역전철(철도) 구축’ △원활한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부지 매입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혁신거점 조성

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익산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경진 의장은 “익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시의 발전을 위해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앞으로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만들기 위해 시의회의 세심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 임시 운영 시작

그림책 특화도서관으로 팝업책 등 책 1900여권 소장

‘실감형 AR 핑거스토리 존’ 운영... 증강현실 체험 가능

익산시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이 21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도산그림책숲도서관은 수도산공원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그림책 특화도서관이다. 팝업북 등 다양한 형태의 그림책 1,9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산공원에 있는 도서관인 만큼 창밖으로 녹색 풍경이 펼쳐져 책을 손에 든 이들의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책 중심의 도서관 특성상 도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독서통장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할 때마다 읽은 책을 기록하고 개인 독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곳곳에 배치해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또 동화 속 그림과 캐릭터를 직접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실감형 AR 핑거스토리 존’을 운영해 어린이에게 색다른 독서 경험을 제공한다.



여는 시간은 오전 9시이며, 화~금요일은 오후 6시에, 주말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배지영 신임회장 “앞으로 생활개선회 위상 높이기 위해 최선”

새해를 맞아 ④한국생활개선회 군산시연합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생활개선회는 여성능력향상 고취는 물론 지속적인 농촌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전문문화



실천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온 단체다.

이임사가 끝난 후 제12대 신임 배지영 회장은 “리영심 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회원들이 닦아 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의 역량 개발 및 생활개선회의 위상을 높여 갈 것”이라는 취임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녹색 놀이터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익산 신흥공원에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0일 익산교육지원청과 ‘신흥공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정성환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예산 지원 등 유아숲체험원의 조성·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익산교육지원청의 지원 예산을 포함해 총사업비 32억 원으로 오는 8월까지 신흥공원 내 1.1ha 부지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흥공원 내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색감의 초화류와 화목류를 심어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 진행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20일 구시청광장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사건 발생 후, 정부는 범죄 근절과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주·익산·정읍 성문화센터와 함께 인식개선 홍보물을 배부했고, 아동 성폭력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실천을 촉구했다.

신정아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아동 성폭력 예방과 시민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극장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